

# '맨체스터 형제' EPL 나란히 승리

### 맨유, 웨스트햄에 2-0 · 맨시티, 번리전에서 2-1 로 이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6연승을 질주한 맨유(11승6무3패)는 한 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 핫스퍼(11승6무2패)와 승점 39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토트넘 +23 · 맨유 +12)에서 뒤진 6위를 유지했다.

맨유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최전방에 배치해 경기를 시작했다. 초반 웨스트햄의 날카로운 역습에 고전하던 맨유는 전반 15분 만에 상대 공격수 소피암 메굴리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다.

맨유는 전반 35분 발렌시아의 슈팅 골라인 통과 직전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웨스트햄은 마누엘 라니니를 앞세워 맨유의 골문을 노렸다.

조세 무리뉴 맨유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후반 미타를 투입했다. 후반 13분에

는 마커스 래쉬포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무리뉴 감독의 교체 전술은 완벽히 적중했다. 후반 18분 래쉬포드가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뒤 중앙으로 내주자 달려들던 마타가 왼발로 차 첫 골을 기록했다.

빼기골은 이브라히모비치의 몫이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혼전 중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로 마무리 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시즌 13호골로 득점 2위에 올랐다.

맨체스터 시티는 번리의 추격을 2-1로 따돌렸다.

지난해 11월26일 번리전 멀티골 이후 한 달 넘게 침묵했던 세르히오 아게로는 두 번째 골로 모처럼 이쁨감을 해냈다.

맨시티는 승점 42(13승3무4패)로 3위가 됐다.

2위 리버풀(13승5무2패 · 승점 44)은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선덜랜드와 2-2로 비겼다. 선덜랜드 공격수 저메인 테포에서 페널티킥을 2개나 헌납했다.

/김민근 기자



이브라히모비치의 빼기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0 승리했다

### 골프존 온라인 대전 서비스 '배틀존' '힐라골프와 함께하는 정규시즌4 스타배틀'

골프존의 온라인 대전 서비스 '배틀존'이 오는 3월20일까지 '힐라골프와 함께하는 배틀존 정규시즌4 스타배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는 LPGA(미국 여자프로골프)에서 활약 중인 유소연, 엘리스 리 선수와 KPGA(한국 여자프로골프)를 대표하는 안신애, 김혜운 선수 등 유명 스타와 함께 대결을 펼치는 신규 배틀존 서비스다.

이벤트는 전국 골프존 비전플러스 및 투비전 설치 매장에서 진행되며, 각각 1·2·3인 스타배틀 라운드 종료 후 재공되는 스티커를 전부 모으면 경품 추첨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단 2인 이상 스타배틀 플레이는 골프존 투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품으로는 총 7500만원 규모로 백화점상품권, 스카티카메론 퍼터, 잭시오FG 드라이버, 갤럭시 기어S3, 55인치 FHD TV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배틀존, 스타배틀, 배틀플레이에서 2회, 4회, 6회, 8회, 10회 라운드 달성 시 신규 캐디, 단킨도너츠, 배틀존 전용이용권 5000원권, 골프존 이용권 1만원권 등 선물상자를 실시간 제공한다. /김민근 기자

### 김동현, UFC 웰터급 랭킹 7위 도약

'스텝건' 김동현(35 · 부산타임즈)이 UFC 웰터급 랭킹 7위를 되찾았다.

김동현은 3일(한국시간) UFC가 발표한 웰터급 랭킹에서 두 계단 상승한 7위에 올랐다.

김동현이 7위를 기록한 것은 11개월 만이다. 2016년 2월 8위를 시작으로 '불10' 바깥까지 밀려났던 김동현은 7위로 강자의 면모를 입증했다.

김동현은 지난달 31일 UFC 207에서 타렉 사피딘(벨기에)을 판정으로 꺾으면서 순위 상승을 이끌어냈다.

통산 13승을 신고한 김동현은 오카미 유신(일본)이 보유한 아시아 선수 최다승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편 이만다 누네스(브라질)에게 48초만에 무너진 킥로 로우지(미국)는 여자 밴텀급 1위에서 4위로 추락했다. 로우지의 빈자리는 발렌티나 셰브첸코(키르기스스탄)가 차지했다. /김민근 기자

### 미국 폭스스포츠 '올해 세인트루이스를 위한 해결책'

## '끝판왕' 오승환 "올시즌 40세이브 목표로 해야"

'끝판왕' 오승환(35 ·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특급 마무리의 상징인 시즌 40세이브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3일(한국시간) '올해 세인트루이스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인트루이스 소속 선수들의 올 시즌 목표치를 제시하며, 오승환에 대해 "40세이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팀의 마무리를 책임진 오승환은 총 76경기에 나와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라는 성적을 거뒀다. 매체는 새 시즌에도 팀의 뒷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승환이 특급 마무리의 상징과도 같은 40세이브를 거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미 오승환은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거치면서 수 차례 시즌 40세이브를 달성했다.

KBO리그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2006년(47세이브), 2007년(40세이브), 2011년(47세이브) 등 세 차례 40세이브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 일본으로 건너가 첫해에는 39세이브를 올리며 어렵게 40세이브 달성에 실패했지만 이듬해 41세이브를 거두고 빅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경기수가 많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시즌 40세이브는 흔치 않다.

지난해 40세이브 이상을 거둔 투수는 6명에 불과하다.

슈리스 파밀리아(뉴욕 메츠 · 51세이브), 켄리 잰슨(LA 다저스 · 47세이브), 잭 브리튼(볼티모어 오리올스 · 47세이브), 마크 멜란스(콜로라도 로키스 · 47세이브)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다.

세인트루이스 소속 선수로는 지난해 전반기까지 마무리로 뛰었던 트레버 로젠탈이 2014년(45세이브), 2015년(48세이브) 해당 기록을 달성했다.

폭스스포츠는 마무리 투수 보직을 두고 오승환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젠탈에 대해 지난해 시즌 막판 부상에서 복귀해 보여준 중간계투를 제안했다. 미국의 또 다른 스포츠매체 'SB에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팀의 마무리를 책임진 오승환은 총 76경기에 나와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라는 성적을 거뒀다.

매체는 "세인트루이스는 로젠탈을 선발투수로 전환하려하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중간계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근 기자

### 정현,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첸나이오픈 16강행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정현(21 · 한국체대 · 세계랭킹 104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에어셀 첸나이오픈 16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2일(한국시간)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대회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48위 보르나 초리치(21 · 크로아티아)를 2-0(6-3 7-5)으로 완파했다.

정현은 서브에이스 6개를 꽂아넣는 등 내내 경기를 주도해 2시간 2분에 걸친 승부를 승리로 장식했다.

그가 투어 이상급 대회 본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지난해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스탄불 오픈 1회전에서 승리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정현은 2회전에서 세계랭킹 96위 두디 켈라(32 · 이스라엘)와 맞붙는다. 정현은 켈라와 2015년에 한 차례 맞붙었는데 당시 2-0(6-2 6-1)으로 승리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